

自然과 人間意識과의 관계로 본 “ 취락경관에서의 內的意味 ” 에 關하여

鄭 基 浩

하노버工大 건축학과 건축 및 취락계획연구소 博士課程

Indication of Immanent Picture in Rural Settlement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Man and his Environment

Ki-Ho Jung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and Settlement, Hannover Univ.

(Institut Für Ländliches Bau-und Siedlungswesen an der Universität Hannover.)

= ABSTRACT =

Landscape around a settlement is not only a natural object, but also a matter of the man in the co-relation with his environment. Man perceives the landscape rational or sensible. Then it changes into the substance for him and influences him: as we see often in the folklore, that is of importance in the mind.

Man reacts against his surroundings decidedly, selfassurd or commonly, and uses sometimes the landscape to the elements for realization, physical or symbolical.

Out of one character of korean villages, adaption to the circumstances, we can notice also its inner image, the reflection of the mind. Seeing and perceiving the environment emotional or reasonable and, reflecting and describing the inner self on the space. Here, the landscape and the nature are matter of the man, a scale for his ethical estimation or a matter of the realization his mind.

It is difficult, but important, such a immanent picture in(or of) the landscapeto find. This is a preliminary study in such a way.

序 論

취락의 경관요소 중, 例로써 洞口的 정자나무나 선바

위등 그 취락의 古來性*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우리는 취락을 위한 重要要素로써 수용해 봐도 좋을 것이다. 또는 일정한 변화요인이 생겨서 그로 因해어떤 대

* 고유성: 여기서는 특히 그 취락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성이 아닌, 보편적으로 어느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러나 그 취락이나 주민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닐 수 있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가치성을 포함한 의미를 지닌다.

상에 변화가 加해졌을때 그리하여 한 취락의 古來性이 사라질 수 있을 경우에 또한 그 변화된 要素를 그 취락이 지니고 있었던 중요한 景觀요소였다고 생각해 봐도 좋을 것이다 (註 1). 우리나라의 취락이 지닌 일반적인 特性을 말할때 風水思想과 밀착된 點을 들곤한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성으로써 風水와 관련된 취락자체의 個性 또는 취락 개별적인 古來性 등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즉 風水라고 하는 일반성하에 각각의 취락들은 風水를 어떻게 수용하여 주위의 景觀을 어떤 성격으로 해석해 본 가운데 형성되어 왔고 오늘날 어떤의 미로써 공존하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風水는 취락형성과 성장과정에서 한몫을 한 方案이나 要因이었지 취락과 주위 景觀을 구성한 要素가 아니었다는데 그 중요한 性格이 介在되어 있을것 같다. 그리하여 風水는 취락을 위한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은 틀림없다하더라도 景觀을 구성해온 직접요인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해서 우리는 취락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여러 景觀요소들을 찾아보고 그 要素들이 취락과 주위 환경과의 관계에서 風水로써 생각해본 「경관구성에서의 개념체계」같은 것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면서 景觀의 構成要素로써 존재해 왔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人間과 自然의 共存의關係는 일정한 개념체계를 통하여 실제 공간상에 具體化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하여 例를 들어 정원과 취락은 「人間과 自然의 상호관계에서 人工的으로 형성된 일련의 構成要素들의 集合體」라는 동일성 하에 각각 自然的인 관조를 위한 景觀으로써 그리고 定住的인 생활을 위한 空間으로써의 構成目的을 취해간 것으로 해석해 보게된다. 구체화과정에서 介在되는 諸 要素들은 景觀의 重要要素로써 또는 그 景觀의 本質의 一面으로써 수용될수 있을것 같다. 風水는 人間과 自然의 共存關係가 하나의 개념체계로써 정리된 성격으로서 人間意識에 투과된 諸 精神的·物理的 환경요소를 취락이나 건축등을 위한 景觀요소로써 실제공간

상에 具體化시켜준 매개체라고 보게 된다. 風水에 依해 형성된 要素들 또는 風水에 依해 具體的으로 묘사된 자연요소들은 그림으로 해서 風水의 개념이 介入되기 이전의 그냥 「存在」해 있던 상태와 비교해 볼때, 취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녀 왔을 것이고 이런면에서 風水는 우리에게 좀더 중요할지 모른다.

우리의 취락이 지녔던 古來性 또는 固有性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위해서는, 風水로써 대표되곤 하는 우리의 전통적 의식과 자연 景觀과의 관계로 본 취락 景觀구성, 즉 한국의 독특한 景觀해석의 母體에 대한 생각들이 도움이 될것 같다. 우리나라에서의 景觀해석의 母體는 「景觀을 통하여 윤리적 관념체계를 반영 또는 인식해 본 點」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게된다. 風水 外에, 한 취락을 중심으로 전해오는 民談같은 경우도 취락의 景觀요소에 관한 중요한 動機를 찾아볼수 있게 할것 같다. 민담이나 說話에 묘사되는 자연대상들은 지난날의 생활경험에서 우리나라와 걸러지면서 이어져 내려온 환경심리론적 결과치일수 있다. 그리고 그속의 몇몇 대상들은 취락을 위한 또는 인간의 意識上 중요했던(그럼으로써 중요할수 있을) 景觀요소들 일지도 모른다(註 2).

이러한 原初의 心理에 依해 형성 또는 묘사된 要素로서의 自然은 例로써 정원 같은데에서는 조형의식을 통해 再構成된 要素로서의 또는 宇宙觀이 表出된 要素로서의 自然이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취락 景觀을 生活의 場으로서의 空間과 주위환경으로서의 自然이라는 단순한 物理的關係로만 보지 않고 민담이나 정원 등에서 보이는 人間の 意識과의 關係로써 생각해 본다면, 그곳으로부터 人間은 자신과 환경을 「主體·媒體」의 관계로써 일정한 관념체계를 통해 認識·解析해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각 취락은 이러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認識關係를 통해서 각각의 古來的인 心象을 지녀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을 통하여 민담과 정원에 內在된 自然과 人間の

註1) 오랜동안 우리들 주위에 있어왔고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아 왔던, 그리하여 하나의 총체적 성격을 지니는 대상, 例로써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나무로부터 풍겨오는 또는 건초더미에서 풍겨나는 내음 등 主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각별한 느낌을 지닐 수 있는 대상, 장소형성에 있어서는 감각적인 관찰성이 요구되는 그리고 계획상에 있어서 직접 영향을 주거나 훼손되지는 않는 대상 - 이러한 우리에게 관심을 유발하는,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인식해 보게끔 하는 요인들은 한곳에 대한 극적인 장소성을 제공하는 것들이다(Landzettel 1981 p42).

註2) 정신적-물리적 집중을 유발시키는 장소들, 여기에는 지형적인 특이성에 의해 독특한 경험을 일으키게 하는 곳 또는 주민들로부터 口傳되어오는 이야기에서부터 생겨나거나 어떤 事件과 관련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들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장소들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한 지역으로부터 그 지역의 本質性을 제거하는 것임을 의미한다(Landzettel 1981 p 42).

* 인간의 의식(또는 경우에 따라 취락 그 자체)을 主體로 볼때 환경은, 主體에 대한 客體로서의 의미보다는, 의식을 現象으로써 具現시켜 주는 요소로 역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환경요소는 意識의 具現化를 위한 媒體일 수 있을 것이다.

關係가 어떤 모습으로 인식·형상화 되는가를 독일의 예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定住空間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으로써 介在되어 가며 우리나라 취락에서는 어떤 성격으로 암시될 수 있을지 그 한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했다.

민담 및 정원에서의 自然과 人間意識과의 關係

우리 주위의 경관을 조망해 보면 지형적인 형태나 상황에 의해 어느 대상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다. 뭔가 비밀스러운 情景를 보여 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신비의 (또는 마력의) 장소 (magische Orte)라 일컫곤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러한 곳을 찾거나 또는 그러한 곳을 기피하게 하는 일정한 힘을 찾게 된다. 주민들에 의해 그러한 곳에 관한 이야기들이 口傳되어 오거나 그 장소에서의 자신들의 옛날의 경험들이 이야기되어 오곤 한다. 그러므로 해서 이들은 視線이 집중될 수 있는 장소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경험의 장소이게 된다 (Landzettel 1981 p48). 민담이나 설화속에는 한 지역을 둘러싼 山·江·湖·바위·나무 등의 要素들이 전설적인 人物이나 事件들과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永川市에서 東쪽으로 2 km쯤에 성재란 곳이 있는데 이 재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용천굴이란 깊은 골짜기가 있고 남쪽에는 근처에서 가장 높은 용암등이란 山이 있다. 그 가운데 높은 등(山)에는 용마자옥이라 해서 바위에 말발굽이 찍혀 있는데 "옛날에 황보장군이 나서 용천굴에 와서 용마를 얻었다. 한번은 용마가 얼마나 빠르나 시험하기 위해 용암등 대박 (꼭대기)에서 북쪽으로 보고 활을 쏘아 놓고 말을 타고 달려갔다. 현재의 말무덤이란 곳에까지 가서 보니까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칼을 빼어 용마의 목을 쳤는데 목을 치고나자 화살이 날아와서 용마의 궁둥이에 박혔다. 그래서 장군이 용마를 애석히 여기고 거기다가 말을 물어 주었다고 해서 말무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용암등 주위 山들에는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황보장군이 말을 달렸다는 산중턱의 면에 평퍼짐한 길들이 남아 있다 (金光淳 1983 p161~162).

민담은 일정한 지역이나 경관속에서 그리고 일정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아 있다. 그것은 그의 시간적·공간적 무대를 형성하고 그곳에 영향을 주며 때로는 경관을 수놓는 要素이기도 하다 (Berndt 1985 p7)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時代를 초월하여 龍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龍 外에 우리나라의 마을마다 깃들어 있는 도깨비로 대표되는 초인적 존재는 독일의 설

화에서는 巨人으로 묘사되어 많이 등장한다.

독일 「라인」江邊에 「지벤게비르게」 (일곱 언덕 Siebengebirge)란 곳이 있고 그 봉우리들 가운데 하나가 「드라헨펠스」 (龍바위 Drachenfels)라고 하는 옛 성채의 유적이 있는 언덕이다.

"본래는 「라인」江이 이곳 앞으로 흐르지 않았고 山에 막혀 큰 湖를 이루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 산무더기를 터뜨려 물을 흘려보내고 농지를 일구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 힘으로 이 일이 불가능해지자 일곱 거인에게 부탁을 했다. 거인들은 잠시간에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일을 마친후 털어낸 먼지가 일곱개의 언덕을 이루어 「지벤게비르게」가 생겼고 그중 하나가 「드라헨펠스」이다" (Berndt, 1985 p108). 이 「드라헨펠스」에는 동굴이 하나 있고 옛날부터 龍이 한마리 살고 있었는데 제물로 받쳐진 少女가 지닌 십자가에 의하여 절벽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 광경을 본 놀란 주민들은 그 부적 (십자가)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그후 얼마 있지 않아서 주민들은 洗禮를 받았다" (Berndt, 1985 p109~111).

즉 中部「라인」지방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다. 또한 채담에 의하면, "龍은 「라인」江을 왕래하는 선박을 습격하곤 했는데 한번은 화약을 실은 배에 불을 뿜으며 덩벼들다가 화약이 터져서 그 폭음은 「라인」계곡을 진동시켰고 龍은 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Berndt 1985 p111).

경북 달성군 다사面에는 박곡洞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있으니 이 다리를 동네사람들은 도깨비다리라고 부른다. 이곳은 영남사람들이 서울로 가던 길목으로서 옛날 많은 선배들이 왕래했는데 洞民들은 이다리에 대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利用面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다리에는 사람의 심금을 흐 못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海娘은 물길에 세찬 내를 매일 건너다니는 어머니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어 몇일밤동안 남몰래 정검다리를 놓았다. 해랑어미는 누가 놓았는지 모르는 다리를 밟고 쉽게 내를 건너 다녔고 동네사람들도 몇일밤 사이에 놓인 이 다리를 고맙게 건너다니면서 도깨비가 몰래 놓은 것이라하여 그리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 가지않자 더욱 도깨비의 所行으로 믿게되어 이 다리를 도깨비정검다리라고 부르고 있다" (金光淳 1983 p183~185)

도깨비에 관한 것으로 또 경북 경산군 하양읍에서 채담된 植松湫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큰물이 날때마다 湫가 터지곤 했는데 한 노인이 꿈에 이르기를 湫를 물길따라 비스듬히 막아야 큰물이 나도 터지지 않으니 표적으로 소나무 가지를 꽂아 놓을테니 (植松) 등

깃날 밤에 팔죽을 주고 도깨비를 請하여 그 자리에 泐을 쌓도록 일렀는데…… 제 몫의 팔죽을 못 먹은 한도깨비가 훗김에 자기가 쌓은 부분을 헐어버렸다. 그후 언제나 그 자리는 터져 지금까지도 터져 있다 (金光淳 1983 p175~176).

주위경관을 지배하는 특별한 요소에 그 독특한 형성 사실을 묘사하고 文化的 획기적인 전파사실-기독교·화약等-이 결부되면서 묘사된 例들을 통해 우리는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경관대상이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된다 (註 3). 동시에 어미에 대한 孝性이 이루어 놓은 징검다리는 결국 동네사람 전체를 위한 이로움을 주는 그 마을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要素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농사를 위한 전수요소로서의 泐는 도깨비와 현몽을 통해 治水와 관련된 지혜를 암시받게 된다. 泐의 한 부분에 약간씩 흘러넘치는 出水口를 터 줌으로써 독의 파괴를 막아 줄지 모르는 泐의 독특한 모습이 도깨비의 행동으로써 묘사되고 있다. 마을의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要素들 중, 例를 들어 古木이나 바위 등이 주민의 감각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왔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動機들이 일정한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오지는 않았을런지, 이러한 類의 민담들은 주민과 마을과 함께 다양한 素材들을 둘러싸고 마을마다 스며있으니, “그들 부부는 평생 좋은 일을 하면서 100세가 되어 그 아기와 함께 같은날 죽으니 그 무덤자리에서 나무가 각각 한그루씩 자라나……” 오늘날의 세그루의 古木의 유래가 되거나, 마을어귀에 모양이 기이한 여러개의 돌이 동산위에 있어서 속칭 돌땀이라고 불리는 마을에는 그곳에 돌이 있게된 연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 오고 있다 (金光淳 1983 p78~80 및 p76~77).

민담을 통해 묘사되는 취락의 몇몇 要素들은 생활경험 또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련성으로부터 나온, 그리하여 원초적 심리에 의해 형성된 自然 그 자체에 묘사된 경관임을 알게되고 또 이들은 그 지역의 古來의 心象이 具體화된 중요한 要素들임도 알게 된다 (註 4) 민담으로써 묘사된 경관이 원초적 심리에 의해 형성된 자연 그대로의 형태라고 한다면, 정원의 그것은 조형적

심리를 통해 再構成된 自然이며 이러한 조형심리는 정원에 人間이 추구한 일정한 意志를 表出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원에서 方池円島가 陰陽論의상징에 의해 萬物의 本質을 表現한 것이라고 한다면, 日本의 정원은 大 自然의 일부를 그대로 묘사 또는 축소함으로써 역시 萬物의 本質을 表現하고자 했던 다른 한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나 日本이 萬物 또는 存在의 本質을 음양론적인 道나 自然의 모습 그 자체에 입각하여으로써 정원구성의 근간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西歐의 정원, 특히 정형식정원에서는 ‘萬物의 변하지 않는 法則은 數學에 있다’는 思考에 의해 생겨난 一面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西歐의 정원이 조형형태상 편이한 모습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하는 근거는 역시 萬物의 本質을 추구해본 意識에 있다고 보게 된다.

비원의 芙蓉池의 조원에서는 方池円島가 지니는 魚水門 및 宙合樓, 芙蓉亭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噴花堂-春塘台 등 讀要素와의 內的關係를 생각해 볼 수 있다. 「魚水門-宙合樓」가 지니는 의미는 명칭의 言語的 意味를 통하여 宇宙 또는 龍宮- 그 자체가 또한 하나의 宇宙일 수 있는 - 의 형상화으로써 그 간에 存在하는 萬物, 즉 人間과 宇宙, 물과 물고기 또는 그 外의 수많은 主觀的 解析을 가능케 해 준다. 芙蓉池 연변에 놓인 芙蓉亭으로써 연상해 볼 수 있는 池와 亭의 관계 그리고 「噴花堂-春塘台」가 池와 맺고 있는 관계로써 類推해 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의 의미 (註 5)는 方池円島의 핵심적 表現이 있음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으며 조원이 지니는 內的 意味의 범역은 이러한 요인들을 통하여 점층적으로 넓혀 질 수 있다. 이렇듯 方池円島를 둘러싼 諸 要素들은 存在의 本質性을 表現해 보기 위한 方便的 要素라 일컬어 볼 수 있는 本質의 表現을 위한 몇가지의 면모라고 생각된다. 동시에 池와 島라고 하는 要素들은 그것을 통해 表現해 보고자한 조원의 핵심으로서의 円島에 서있는 나무로써 表現된 상징적인 「點」을 위해 존재하는 지도 모른다.

「카레지오莊」(Villa Careggio)의 정형식 정원에 원류를 두는 「存在」를 표상한 類의 정원(Zustandgarten)에서는 수학적법칙이 유일한 分別요소로서 介在되고 있다. 그것은 성장도 퇴거도 하지 않는다. 그냥 그

註 3) Drachenfels는 「게르만」主神인 「보단」(Woden)을 모셨던 聖所였음.

註 4) 古來의 이러한 要素들은 일정한 변화요인이 더해질 때 쉬 사라질 수 있다. “현대문명의 발달로 양수기가 등장하자 이 도깨비 植松泐는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泐의 높이는 낮아지고 다른 용도로 이들을 주위가 버려 泐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金光淳 1983 p176).

註 5) 芙蓉亭의 모습에서 方池와의 空間的 상황을 萬物의 本質과 線이 닿고있는 한 存在(人間)像을 떠올려보고, 과거시점을 보는 마당 - 萬物이 소생하는 바당 또는 새로운 人物이 나타날 장소일수 있는 春塘台와 거기서 선택된 者가 오르게 되는 또는 어떤 結實의 상징일 수 있는 마루로서의 噴花堂, 이 兩 空間間에 한 存在를 介入시켜 볼 때 한 人間의 理想的인 像으로서의 한 단편을 또는 理想 그 자체를 상징한 한 단편을 경우에 따라서는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체로서 존재할 뿐이다”(Horti, 1985 前文) 독일 「하노버」(Hannover)市에 있는 16세기경의 한 정형식정원에 관한 이 引用을 통해 그것이 表明하고 있는 중심은 불멸의 本質을 表現하고자 함에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이 정원의 상징성은 「라이프니츠」(Leibnitz 1646-1716; 1676년 이래로 Hannover 王家의 궁정고문)의 單子論(Monadologie)과 관련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하학의 세계 또는 그의 宇宙哲學에 근거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크게 上半部와 下半部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 정원은 「몽드」(Monde 佛語의 달)라고 불리는 최상단을 點으로 하여 大分천을 중심으로 사각형과 대각선을 조합한 苑路와 林으로 이루어진 상반부와 「파르레」(Parterre)와 산을타리를 주로 이용한 迷路苑과 象으로 이루어진 하반부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의 외곽은 濼로써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상반부에서는 「라이프니츠」의 單子(Monade)의 세계가 「存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리고 像과 小庭園의 구성을 통하여 春夏秋冬의 四季나 地水氣火의 四大要素를 비롯한 여러 단편적인 表現으로 이루어진 하반부에서는 雌雄의 關係로써 표현한 人間の 思考의 生長을, 또는 生에서 죽음에 이르는 人生의 行路를 묘사함으로써 하나의 「테-마」, 즉 ‘탄생을 위한 투쟁에서 生을 마감함’이란 命題를 놓고 본 人間の 存在를 몇가지 각도에서 表現하고 있다(Horti 1985 p15-31). 하반부를 이루는 諸要素들을 自然에서(또는 現象世界에서) 이루어지는 人間을 둘러싼 諸現象을 그려놓은 작은 상징적 무대들이라고 한다면 상반부의 「存在」라고 하는 形而上學의 무대와 함께 전체 정원은 自然 또는 宇宙를 움직이는 理致를 담은 하나의 큰 무대라고 일컬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哲學者나 心理學者들이 끊임없이 찾아 왔던 바와 같이 우리의 內面世界에는 여러 각도와 면모로써 외부로 비추어지는 단편적인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內面世界에는 그것을 총괄하고 지배하는 法則이 있다. 「라이프니츠」는 그의 저서(「Monadologie」 1714 및 「Vernunftprinzipien der Natur und der Gnade」 1714년경)에서 이 정원에 담긴 이러한 內面世界를 지배하는 法則에 關한 근원적 이념과 관련되었을지 모르는 많은 시사점을 하고 있다(Horti 1985 p30-32). “自然을 구성하는 진정한 粒子- (이러한, 物質로서가 아닌) 本質의인 存在를 그냥 「單子」라고 일컬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물질의 단편들은 꽃이 만발한 정원이나 물고기가 가득한 연못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나무가지들, 生物身體의 각각의 분절들 그리고 果什의 한방울들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원이나 연못과 같

은 존재이게 된다…… 우주간에는 죽음이란 것은 없다. 죽음은 그냥 허물을 벗음에 불과하며 태생의 의지는 새로운 허물을 입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그 사이의 간극, 즉 죽음이후의 시간에서 비로소 한 存在는 주미한 무대위에서 있는 완전한 認識의 경지로써 존재하게 된다.” 정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무대위에 물과 나무 그리고 彫像 등의 要素를 통하여 「現象과 本質」 또는 「삶과 죽음의 경계」…… 등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철학이 그리고 人間の 內面的 思考가 具體적으로 이곳에 表出되고 있는 것이다.

취락구성에 개재되는 몇가지 개념체계

1) 順應과 表現의 側面:

관조를 위한 경관조성의식은 좀더 實生活의 次元과 밀착됨으로써 定住를 위한 生活空間的 構成 또는 하나의 취락과도 같은 類의 경관을 이루게 된다. 「퓌클러」 공작(Furst Puckler: 1784-1871)의 「무스카우」(Muskau) 「파-크」와 관련한 그의 저서(Furst Puckler, 「Andeutungen über Landschaftsgartnerei」, 1834)를 통하여 이러한 정원구성과 정주공간구성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내가 「무스카우 파-크」와 같은 대사업업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構想을 했었다. 世代로부터 수세기 동안의 領地를 물려받아…… 나의 모든 힘을 주어진 재산을 다스리는 일에 쏟아야 할(領主로서의) 입장에서 領地內的 住民을 교화시키고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거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기존의 정원 外에, 江流域의 平原과 일련의 언덕, 농지, 방앗간 그리고 남쪽으로 벌어내리고 있는 구릉 끝의 협곡에 있는 광산에까지 정원을 확장시키고 市 後面의 비탈과 그에 인접된 부락들을 추가시킴으로써 都邑 자체를 정원에 둘러싸이도록 계획함으로써 훗날 농지들과 함께 지극히 정원의 한부분과 같이 보이도록 고려했다. 이는 또한 내가 전체 계획을 세울 때 주목했던 主意圖로써 결국 우리 가족의 삶의 모습 또는 우리조국의 귀족정치적 이념의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었기도 하다. 이러한 의도와 방법으로써 이루어 놓은 여기의 이 정원에서 결국 조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각자 감성으로부터 그리고 이 정원에서 간직할 수 있는 안온함으로부터 자연히 나의 이러한 의도를 떠 올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全 領域을 지배하는 要素로서의 山은 그럼으로써 나의 조원이념의 表出點으로 선택되었고……”(Schnads 1962 p322-325에서 인용)

즉 정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한 심미안적

조형이 아닌 다른 중요한 의도, 특히 「무스카우」에서와 같은 의도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취락 또는 都市를 형성함에 있어서 특히 18세기 무렵에는 많은 계획도시가 이루어진다. 30년 전쟁(1618-1648)을 치루고 황제권에 대한 제후와 교회의 세력이 강해짐과 관련하여 그리고 戰後의 재건과정에서 강력한 절대군주적인 지방의 각 제후들은 그들의 都邑地들을 새로이 계획 또는 건설하게 된다. 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城이나 都市가 山頂이나 山麓로부터 平地로 이동된다는 점과 함께 都市 자체를 주위경관과의 깊은 관련 속에 그리고 宮城의 경관구성을 위해 都市와 자연경관을 하나의 계획된 정원과 같은 개념으로 「表現」해 보려는 의도에 있다(註 6).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都市에서와 같이 엄격한 계획하의 형성이나 성장을 보기 힘들다. 오히려 자연과의 관계에서 「순응」 또는 「적응」이라는 체계속에 이루어진 규칙이 있었다. 독일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취락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왔던 규칙성은 다음의 引用으로부터 개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마을의 경우에는 취락의 성장이 지형과의 깊은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전형적인 요인들이 개재되어 있다. 자고로 어떤 곳에서부터 취락들이 형성되어 왔던가? 저습지역에서의 특수한 취락형태 들이나 평원에서의 자유로운 팽창의 가능성을 지녔던 취락형태의 특성과 관련하여 본다면, 이러한 산지지역에서의 취락들은 대부분 큰江과 合水되는 작은江이나 시내 어귀에서 약간 떨어진 江연변에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低地帶에서의 습함에 대한 곤란을 덜고 水利事情(특히 배수관계)을 원활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작은 江을 긴 谷間 그리고 主谷에 연이어져 내를 긴 枝谷間에 형성된 마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색을 지닌 지형지역을 우리는 전형적인 취락을 위한 공간이라 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으로 계곡을 따라 이어진 자연적인 적정공간을 넘어서 취락의 성장은 19세기말에 와서야 가능했다. 즉 人力에 依한 경영에 있어서는 지형조건을 극복하여 實行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하여 능선상의 건축은 회피되곤 했다. 오늘날 마을이 농촌적 성격에서 定住的 성격으로 변환되어 감에 따라 건축에서의 기계화가 급격히 이루어 졌고 자연적 경계로서의 전이공간적 경관 - 예를 들어 구릉 - 은 새로운 주택들에 잠식되어 갔다”(Landzettel 1985 p50-52).

註 6) Karlsruhe는 이러한 개척도시들 중 대표적인 한 예가 될 수 있다. 1715년 인근의 Durlach로부터 森林(Hardwald) 한가운데에 宮城을 옮기면서 새도시를 계획한다. 부채형의 도시평면은 당시 절대군주주의의 시대사조와 잘합치된다. 그 중심핵은 8각형의 宮의 침탑에 해당되어 그로부터 32개의 방사선이 도시의 街路 및 숲의 Allee를 이루고 있어서 그 침탑은 모든 도로나 Allee로 부터(그 「存在」가) 인지되고 있다(Kogel 1972 p16-17).

2) 「원형」(Archetypen) :

自然의 要素는 도시경관을 이룸에 있어 「表現」을 위한 매체가 될 수 있고 농촌에 있어서는 그로인해 「順應」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人間과 自然의 관계가 그 목적하는 意識 -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함과 生活을 위해 주위환경과 共存하고자 함 - 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띠면서 형상화되어 간다. 그러나 人間이 하나의 空間이나 景觀을 이루어가는 근원에는 이러한 兩者의 성격과 상관없이 또는 그러한 양상 이전에 행해지는 경험적인 규칙성이 있다.

동굴은 건축행위가 아직 未明에 간헐 있던 시절의 주거장소로서 전형적인 安住空間이었다. 오늘날에는 종종 습하거나 음침하게 느껴지기까지하여 오히려 신비스러운, 그리하여 모험을 위한 좋은 대상이기도 하다. 동굴에서의 諸狀況들 - 空間感, 빛, 소리의 反響, 적막함 등의 要因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비로움이나 음울한 분위기를 매우 강하게 느끼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山中에서 뇌우를 만나 비를 피하게 될때와 같이 동굴 바깥의 상황이 돌변했을때는 오히려 그 옛날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로서 안온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兩面的인 감각은 동굴이라고 하는 특수상황을 뉘 예로써 생각해본 한 空間에 대해 認識될 수 있는 극히 보편적인 감각들이다. 空間에 대해 반응되는 원초적이거나 본능적인 감각은 대상이 되는 장소가 인간의 뇌리에 깊이 영향을 주었을때 그곳을 특별한 의미를 지닌 눈으로 보게끔 한다. 동굴이 주는 양면적 감각, 즉 불확실에서 오는 그리고 밀폐감에서 오는 불안감 또는 경외감 그러면서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안온함 등의 분위기는 결국 폐쇄된 공간이 주는 공간개념의 한 전형일 수 있어서 옛부터 聖所를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어왔을지 모른다. 聖所類의 非凡한 공간감은 건축공간에서 예를들어 불국사나 경복궁 근정전과 같이 회랑으로 둘러싸인 空間으로 그 맥이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口字型, 그중에서도 특히 正方形으로 굳게 닫혀진 전통주택들의 안마당에서 느껴볼 수 있는 감각으로 이어져 오는지도 모른다.

환경이나 空間에 대한 認識이나 판단은 극히 主觀的인 경우로써 左右되는 것이지만 동굴의 감각과도 같이 비교적 일반적인 보편성을 띠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즉 문화권이나 時代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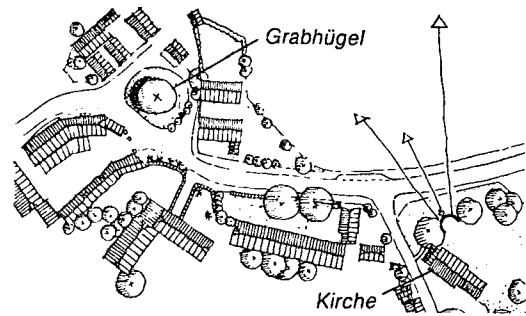
개념을 일으키게 되는 모습이나 형태를 「원형」(Archetyp)이라 일컫고 있다(註 7). 円은 일체감 또는 공동체감을, 그리고 정방형은 東西南北 또는 前後左右 등 네방향에 대한 '기하학적인 확정성' 또는 '확실함'의 기본형이 되어(Landzettel 1985 p19) 정원에서의 方池円島 그리고 건축에서의 기둥의 단면형의 기본을 이루고 있음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택에 있어서 두리기둥은 마루나 사당에 적용되는 원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있는 원형적 현상들 중, 「쌓는다」는 행위나 형태는 축적·저장의 의미에서 그리고 높이는 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임으로써 날가리·돌무더기·무덤 등의 例로써 나타난다. 「세운다」는 행위는 어떤 장소를 表示하는 일 그리고 어떤 문제성을 극복하는 일, 즉 집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는 일 또는 게양대·탑·십자가·묘비 등의 형태의 母體가 되며,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돈다」는 행위는 儀禮的 行爲를 나타내어 그림으로써 한 장소를 특징지우거나 점취개념을 이루게 되어 例를 들면 들판을 들거나 사찰이나 탑주위를 돌면서 行하는 신앙적 의례로 또는 「카니발」이나 농악의 행사에서 市街나 마을을 도는 일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Landzettel 1985 p 19). 인도의 大塔들은 이러한 「원형」의 要素들이 복합되고 반복된 형태의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註 8).

앞서 본 민담에서의 「무덤에서 솟아난 세그루의 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형」과 관련된 몇몇 要素를 독일의 한 例로부터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써 밝혀 볼 수 있다.

「에베센」(Evessen)이라는 한 마을어귀에는 구축연대가 신석기나 청동기 頃일 것으로 추측되는 봉분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보리수(Linde)가 한그루 자라고 있

다(註 9). 봉분과 나무가 함께 존재하는 특징적인 모습은 그곳에 가미된 「원형」적 要素들과 함께 그것이 지니는 이 마을에서의 意味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註 10) 및 (그림) 円形의 平面, 쌓는 행위와 쌓아진 형태 그리고 그 위에 나무로써 세운 행위 — 이러한 「원형」은 그것을 통하여 행해지는 인간의 意識 및 儀式行爲, 즉 人間이 그로 因해 자신의 存在性을 이해하고 드높은 질서속에 하나의 共同體로써 동참하게 되는(例를 들어 省墓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理解儀式을 통하여 「원형」은 모든 사람 — 비록 그 대상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어루만져 주게 된다. 이런 계기를 통해 人間은 共同意識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思考는 경관이나 취락의 영역으로 넓혀져 적용되어 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너보고 주의깊게 생각해 보고 혹은 새로이 이루거나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을 바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라 일컬어 볼 수 있을 것 같다(Landzettel 1985 p20). 그리하여 「원형」의 모습은 모든 생활영역과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



註 7) Gunter Feuerstein은 그의 論文(Feuerstein, G, 1960, "Archetypen des Bauens," Dissertation, Wien)에서 4 유형의 「원형」들(Archetypen)이 건축에서 취해지는 상황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이 「원형」들은 모든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동등한 가치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Landzettel 1977 p76 및 1985 p 19-21).

註 8) 円으로써 塔의 중심형태를 갖추고 사방을 구조물로써 한정시키면서 흙·돌·또는 조각물로써 봉분과 같이 쌓아가거나 몇개의 「모티프」로써 점탑을 세우는 행위를 반복해 가는 모습 등이 일반적인 塔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註 9) Tumuli (라틴어로 Tumulus는 언덕을 뜻함 Tumuli는 복수형) 또는 Hochs라 불리우는 이러한 봉분의 특수형은 특히 규모가 크고 그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능선이나 봉우리等 현격히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 근역에는 7개의 이러한 유적이 있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Evessen의 경우이다(Busch 1985 p26). 中國에서는 묘상에 松柏이나 나무를 심어주어 五行의 相生法에 따라 수목으로 부활하도록 귀속시킨다(鄭喜永, 1981 p450).

註 10) 더구나 Evessen의 Tumulus는 그곳의 紋章으로 응용되었으며 中世에는 마을재판이 行해졌던 중요한 장소였다(Busch 1985 p 26). 마을의 중요한 장소로는 Tie* (또는 Tieplatz)란 것이 있다.

*Tie: Niedersachsen지방에서는 마을의 집회 장소로써 존재해 왔고 마을의 중심 또는 교회 등 특별하고 중요한 곳에 위치하며 약간의 土를 이루고 낮게 담이 둘러지며 보리수가 몇그루씩 자라는 구성을 갖고 있다. 오늘날도 이러한 곳은 마을공동체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마을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써 이용되고 있다(Groenendijls 1984 p25).

되곤 하며 한 장소가 지니는 의미가 깊으면 깊을수록 「원형」적 감각들은 더욱 강하게 밀착되어 오게 된다.

3) 우리나라의 마을에 개재된 개념들 :

원초적인 심리로부터 형성되는 「원형」적 형태는 도시급 지역별 또는 문화권에 따른 독특한 형태나 개념으로 발전될 경우가 생긴다. 소위 지역적 특성이나 민족성 등에 의한, 문화적·관습적 또는 전통적 意識에 의한 특징적 모습들을 일컬을 수 있다. 이것을 「원형」이란 命名에 對해 일단 「이차형」이라 불러 본다. 우리나라에서의 自然을 認識해온 行態, 例로써 風水로써 命名된 개념체계는 원천적으로 自然으로부터 어떤 힘을 감지하는 意識 또는 自然에 대한 「원형」적 반응감각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註 10). 이것이 東洋文化권의 思考 그리고 山이 많은 지형적 특성 혹은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山에 대한 각별한 감각을 지녔던 心理 등과 묶여져 전해진 경관인식적 개념체계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조선朝의 風水는 倫理的 觀念체계와 밀착되어 山·水·場所를 認識·解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나의 場所는 한 人間을 중심으로 그의 근원적 背景을 主 山의 脈을 통하여 그리고 그와 상관을 맺는 現象에서의 諸要素들을 案山과 朝山 그리고 左靑龍·右白虎 등 사방에 존재하는 자연요소들을 통하여 파악했던 것 같다. 한국의 독특한 경관해석의 母體를 “경관요소를 통하여 倫理的 觀念체계를 반영·인식해 본 데 있다”고 생각해 본 點은 風水의 경우를 놓고 개괄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風水는 “「地氣」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환경인식적 관념이 「地氣의 收容」이라는 意識을 통해 형상화된 通念”이라고 개괄할 수 있다. 여기서 地氣와 관련한 환경인식적 관념, 즉 凡水에 깃든 기본구

조적 개념은 일반적인 인간심리의 공통성과 맥이 통한다 (註 11). 그러나 「地氣를 收容」한다는 意識 그리고 그것이 실제 공간경영을 위한 결정적인 실마리로서 응용 또는 원용되었다는 점은 그리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듯 하다. 例로써 日本의 경우도 건축과 정원의 관계 또는 드물게는 都市의 立地에 있어서의 「場所」의 개념은 風水의 개념과 같은 맥에 놓여 있지만 風水 자체가 사회에서 通用된 직접적인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다 (Speidel 1983 p12-17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風水개념을 통하여 경관을 「人間化」시킴으로써 또는 자신을 自然의 일부라 생각하여 「自然化」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간의 상호 同質성을 지녀 왔던 것 같다. 특히 形局論 - 비록 그것이 風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方便이었다고 하더라도 - 을 통하여 때로는 극히 主觀的인 眼目으로써 때로는 客觀성을 띤 모습으로써 경관을 認識·解析해 왔던 點이 主目되는 것이다. 風水가 취락을 위한 경관형성의 중요한 매체라고 한다면 그리하여 우리나라 古來의 취락경관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취락경관의 「이차형」적 감각을 이루어 온, 무엇보다도 주위 경관을 통하여 자신의 윤리적 관념을 반영시켜 보았거나 逆으로 윤리적 관념체계를 통하여 경관을 해석하고 인식해 보았던 중요한 개념체계였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취락을 보게 되면 자연에서 관조된 또는 직관된 감각으로부터 이루어진 소위 「順應」의 한 側面과 함께 性理學的 또는 그와 유사한 倫理的 思考에 의해 훈련된 눈으로 비추어 본 心象으로써 형성·묘사 또는 파악된 「表現」的 側面이 內在됨을 읽게 된다. 「順應」的 側面이 민담이나 「원형」그리고 風水 등에 유

註10) 및 11) 人間은 일생에 걸쳐 끊임없이 환경에 대한 우리의 감각 - 환경을 認識하고 解析·評價하는 것 - 을 통하여 공간적·시간적·물리적·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自身의 位置를 確認해 가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感覺은 理知를 앞서가곤 한다. 前後左右는 자신과의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의미를 지닌다. 前方은 (시간적으로는) 未來가 (공간적으로는) 자신 앞에 ‘벌려있는’ 그리하여 어떤 ‘행동’으로 이끌어지는 것, 後方은 過去가 그리고 ‘장악된 (또는 점취된) ‘곳으로써’ 自意識·意味의 熟考, 記憶을, 그리고 지금의 바로 이곳(자신의 위치)는 ‘지금 이 순간’으로써의 現在가, 그리하여 ‘안정됨’ (左)과 ‘경계를 풀지 않음’ (右) - 靜과 動 - 의 心象을 지니고 있다.

..... 이러한 (「원형」에 관한) 생각들은 수평선·山·山의 鞍部·산마루·산허리·계곡·협곡·森林이나 숲 또는 Sporn** 「원형」적 반응을 일으키곤 하는 경관요소들과 취락과의 관계에 의해 확대되어 갈 수 있다.

*山: 山은 행로의 (행위상·시각상) 종착지이다. 山은 ‘홀로 있음·극복함·遠望·그리고 두드러지거나 초월됨’의 의미를 갖게 하여 그곳에의 건축은 가능한 한 회피되곤 하며 성채나 기도소 등 특별한 의미를 지닌 건축의 장소로 이용되었고 그렇게 여겨져 왔다. **Sporn: (山이 평지나 계곡으로 이어져 내리다가 다시 도톰하게 작은 언덕이나 봉우리를 이루는 곳) Sporn은 山과 계곡간의 잠시 머무르는 중간목적지의 의미를 갖는다. 성채가 있었던 장소 또는 지형형태상 마력 (또는 신비력)의 성격 (magisch)을 지니서 주변에 대해 드높은 성격으로써 버티어 서 있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행길에서의 좋은 眼着地가 되곤 한다.

경관이나 취락에서의 수많은 상황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인식되어지곤 한다. 그리고 그 現象들은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하는 명확한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개척에 있어서 이러한 본능적·원초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조건들을 해석해 보는 것은 곧 정확한 결정가능성을 의미한다. 계획에서의 목적은 항상 인간 자신을 향해 추구해 보는데서 찾아지고 또 달성되는 것이다 (Landzettel 1985 p16-21).

사한 감각의 所産이라고 한다면 「表現」의 側面 위에 음양론적 사고·풍수적 개념체계를 통하여 때로는 이러한 개념을 빌어서 마음 속에 그려본 文意的 감각이 다분한 관념적인 형상이라 생각한다.

전통적 공간구성의 전형적 성격을 자연에 順應한 형태로써 이야기하게 되는것, 그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보아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外形의인 特性일수 있기 때문이다. 反面에 관념론적 「表現」의 側面은 직관이나 外形으로써 쉬 感知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다분히 主觀의인 領域에 속하는 自身의 觀念에 대한 表出 또는 暗示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형이나 경관형태와 함께 그 이면의 사실, 예를 들어 그와 관련된 人物의 詩文이나 記文 등과도 관련하여 推論해 봐야할 경우까지 생긴다. 마치 민담에 등장하는 要素들이, 外形으로는 마을의 중요한 경관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민담으로 묘사된 내용 속의 한 個體로서는 人間의 倫理規範을 內包하고 있고 그것을 누구에겐가 일러주는 매체역할을 하고 있듯이, 觀念의 側面에서의 暗示的 「表現」은 詩文이나 記文 外에 性理學的思想 또는 風水나 민담으로부터도 그 動機를 찾아 볼 수 있다. 人間과 自然의 관계를 精舍라는 대상으로써 「精舍와 自然」의 側面에서 다룬 한 論文(俞俊英, 造形藝術과 性理學)은 전통경관의 관념적 측면을 고찰한 한 例라고 생각된다. "精舍라고 하는 性理學과 관계있는 建築史를 다루는 문제"에서 谷雨 김수중(1624-1701) 선생의 華陰洞精舍의 유적을 그의 文集인 「谷雲集」과 함께 고찰하면서 "華陰洞精舍가 건축, 그중에서도 精舍造景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造景史의 과제이기 때문에 朝鮮朝造景史를…… 性理學과 연관시켜……「예술을 통해서 문화의 특수형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圖式化된 상징성을 태극도의 具象의 知覺行爲에 依한 岩盤彫刻에서 그리고 象數易의 陰陽消息觀 등에 보이는 進退·消息과 같은 二氣의 주기적 증감작용의 원리를 精舍造景에 表現한 것으로 파악하며, 思想과 그 表現의 경향이 당시 선배들의 은둔문제, 즉 어찌서 자연으로 물러가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人間과 自然과의 관계로써 살펴보고 있다. 그리하여 "조금씩 확신이 서 가는것은 과거의 性理學이란, 倫理的 次元이나 철학적인 說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具體的인 行動樣式과 外形의인 모습으로도 우리문화 속에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俞俊英 1984 p1~2 및 p35). 性理學的 側面의 空間經營을 생각함에는 退溪思想을 살펴보게 된다. 退溪의 哲學思想은 무엇이 作用하느냐 하는 「發」문제를 계기로 해서 그의 「理」에 대한 견해가 정립되고 이 理의 체득을 위해서 「敬」의 必用을 역설하게 되어 一生의 행동거지의 기준이 되

었다(柳正東 1983 p 81). 退溪의 敬思想은 動靜一貫에 있다. 즉 精해서 天理의 本然을 함양하고 動해서 人慾을 기미에서 결단한다는 것이다. 外界의 万理나 內界의 心理는 하나의 理로 되어 退溪의 理觀을 형성하였고 生涯를 일관하는 特敬工夫는 그의 四七論(四端七情論)의 줄거리를 굳혀준다(柳正東 1983 p 96~98). 後人의 性理學의 스승이라 일컬을수 있을 退溪의 敬思想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門人이나 後學들의 生活에 하나의 典範이 되었을 것이라 본다면, 그리하여 이러한 思想이 조형상에 반영되어 예를 들어 華陰洞精舍에서와 같이 具體的인 構造物등을 통해 進退消息觀을 表出해 본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취락경관에 介在되어 있을 전통적 사상이나 윤리관 등과 관련된 觀念에 관한 側面은 취락의 個別的인 古來性 또는 本質的인 要素의 하나로써 고려될 수 있을것 같다.

要約 및 見解

취락구성의 주요요인과 구성요소로서 自然과 人間意識과의 關係를 통하여 생각해본 취락경관에 介在된 內的意味에 關한 본고찰은 그 공간에 「원형」(Archetypen)이란 개념을 둔 것이었다. 즉 원초적 심리에 있어서는 어떤 다양한 주위요인이 있더라도 근원적으로는 동일한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담에 있어서, 그 서술되는 目的意識에 있어서의 動機는 지역이나 문화권에 따라 약간씩은 다를수 있겠지만 서술되고 있는 要素나 場所는 그곳을 대표할 수 있는 또는 인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던 대상들이란 점에서는 그 차이점을 볼 수 없다. 人間의 意識이 직접 조형에 미치는 정원의 例에서도 그 構成의 궁극적 목표는 「人間과 自然」또는 「人間과 宇宙」, 「万物의 本質」에 관한 人間意識의 具體化란 데에 있었다.

취락을 이룸에 있어서 介在되는 개념은 크게 둘로 생각되어 「順應」과 「表現」이란 모습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를 통해 볼때 時代的인 要求性, 個別的인 諸能力關係 그리고 內·外的으로 意圖되는 形便化 方法等이 作用됨으로써 都市의 例에서는 주로 의도적인 계획下에 「存在」를 나타내 보이는(과시적) 「表現」의 모습으로, 反面에 농촌취락들에서는 自然의 條件에 共存 또는 依存하는 모습의 「順應」의 特性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나라의 취락에 계재된 「順應」이란 큰 특징은 風水의 개념 등에 依해 이루어졌던 형태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민담에서도 風水가 主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이나 人物을 통하여 취락민이 지녀온 自然要素에 대한 認識觀 또는 그러한 生活에서 나타나는 倫理觀 등이 暗暗裏에 表現되기도 한다. 민담

을 통하여 우리는 주민들 의식 속에 남아있는 취락의 중요한 要素나 場所들을 찾아볼수 있고 더불어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을지도 모를 생활모습들을 생각해볼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順應」의 대표적 모습이라 할 만하다. 「順應」의 다른 一面 또는 때에 따라서는 극히 의도적인 「表現」적인 한 면모 - 그 대표적인 경우로 정원을 구성하는데 介在된 人間의 意志는 무언가를 表現 또는 表出하고자 함에 있다는 點 - 라 볼수도 있을, 例로써 性理學의 思考觀念으로써 집과 精舍 그리고 주변 경관을 自身의 內的本質 또는 倫理的 領域으로 삼아 묘사·표현·구체화 시켜가기도 한다.

최소한 동쪽부락의 한두 例들에서 그러한 「表現」적 의도에 依한 경관구성의 일면을 확인할수 있지만 엄밀히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例의 경우도 취락의 총체적인 外形은 마찬가지로 「順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도 「順應」과 「表現」의 성격과 형태를 外形上으로 더우기 空間上에서는 뚜렷하게 경계 짓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 두개념은 취락경관의 영역에 있어서 상호공존하고 있는, 外的으로 「順應」의 모습을 그리고 內的으로는 「表現」의 性格을 內包하고 있는 兩面的 要因은 아닐까 생각한다. 兩面性을 지닌 경관구성의 성격은 석굴암의 조성을 두고 생각할때 좀더 확실해 질것같다. 석굴암은 토함산과 동해안의 大王浦 그리고 석탈해와 관련된 설화 등 그 裏面的 背景을 고려하지 않고는 진정한 「順應」의 모습, 즉 自然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그 間에 內在된 造形意識을 토함산 - 동해안 間에 內在된 듯한 의미와 함께 생각해 볼때 비로소 석굴암의 「表現」적인 모습을 감지하게 된다. 취락에 있어서의 「表現」의 意圖下的 경관구성 - 정확히 말하자면 「경관의 認識과 解析」에 해당하는 범위 일지도 모르겠지만 - 은 근원적으로 석굴암에 介在되고 있을 성격과 同質의 경우는 아닌가 생각한다. 「順應」과 「表現」이라는 相對的 側面을 나타낼수 있는, 경관구성에 있어서의 自然과 人間意識과의 관계에 關한 본 고찰은, 우리나라의 한 취락을 놓고 자연과 취락의 관계를 그와 관련된 한 人物의 意圖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問題性 - "人間과 自然의 共存關係에서 自然의 要素는 人間의 意識에 투과되면서 취락과 人間을 위한 本質的 要素로서 수용되고 형상화되며 여기에 취락이 지니는 物理的 - 精神的 意味가 內在되어 있을것"이라는 觀點을 背景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具體化되어야할 事例들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金光淳(1983): 「韓國口碑傳承의 文學」, 서울: 형설출판사.
- 2) 柳正東(1983): 「退溪의 生涯와 思想」, 博英文庫 22, 서울: 博英社.
- 3) 前俊英(19): 造形藝術과 性理學, 柳承國, 「韓國美術史論文集(1)」研究論 84-8,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4) 鄭喜永(1981): 「臨汀春秋」 第一輯, 大邱: 臨汀春秋再刊行所
- 5) Berndt, Helmut(1985): Unterwegs zur deutschen Sagen, Düsseldorf & Wien: Econ Verlag.
- 6) Busch, Rudolf(1984): Heimatbuch 1984 für den Landkreis Wolfenbüttel, Braunschweig.
- 7) Groenendijk, Henny: "Archäologische Denkmale-Ties", Was ist ein Kulturdenkmal?, 1984, Niedersächsisches Kulturministerium für Denkmalpflege, Hameln: Verlag CW Niemeyer.
- 8) Kögel, B. u.a.(1972): Der Raum, in dem wir leben-StadtKreis und Landkreis Karlsruhe, Karlsruhe: Paul List Verlag.
- 9) Horti, Eugen(1985): Der Herrenhäuser Garten und seine Statuen: Byneolog-Symbolik, Bad Münder: Leibniz-Bücherwarte.
- 10) Landzettel, Wilhelm(1977): Wege und Orte- Dorfentwicklung in Hessen, Wiesbaden: Hessisches 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und Umwelt.
- 11) Landzettel, Wilhelm(1981): Ländliche Siedlungen in Niedersachsen, Hannover: Niedersächsischer Sozialminister.
- 12) Landzettel, Wilhelm(1985): Das Dorf, in dem wir leben-Eine Sehhilfe für Landschaft und Siedlung, Hannover: Niedersächsischer Sozialminister.
- 13) Schnack, Friedrich(1962): Traum vom Paradies - Eine Kulturgeschichte des Gartens, Hamburg: Rütten u. Loening Verlag.
- 14) Speidel, Manfred: "Das japanische Wohnhaus und die Natur", Japanische Architektur-Geschichte und Gegenwart, 1983, Sbadeeie Manfred. Architektenkammer Nordrhein - Westfalen, Stuttgart: Verlag Gerd Hatje.